병원중심 가정간호에서 사용된 간호진단 분석

소애영

원주대학 간호과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간호시범사업이 이루어진 W시 3차 병원에 소재한 가정간호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간호진단 목록을 분석하여 간호진단 분류체계인 NANDA 분류체계의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6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총 884명중 제왕절개 후 단순처치를 위해 의뢰한 478명을 제외한 406명의 가정간호기록지중 1회 방문으로 간호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253명의 대상자 전원의 기록지를 분석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로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4.8세로 60세 이상이 7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관리기간은 115일로 나타났고 1개월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의 경우는 7.1%에 해당하였다.

대상자 1인당 평균 가정방문 횟수는 평균 12회이었으며 10회 미만이 대상자의 62.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진단명은 뇌혈관 질환과 암이 68.4%를 차지하였다.

기록지에 나타난 평균 간호진단 수는 3.11개 이었으며 최소 2개에서 최대 12게로 나타났다.

간호진단 목록은 총 41개로 가장 빈도가 높은 진단은 감염 위험성으로 대상자의 42.7%를 차치하였으며 다빈도 10순위는 피부손상 33.67%, 피부손상위험성 29.2%, 영양부족 26.1%, 운동장애 21.7%, 지식부족 21.3%, 기도개방유지 불능 13.4%, 통증 13.4%, 변비 12.3%, 불이행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NANDA의 간호진단 분류체계의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교환영역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차순위로 기동영역 13.2%, 지식 영역 7.8%, 감정영역 6.4%, 선택 영역 6.1%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NANDA 분류체계의 진단 목록 중 41%가 가정간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타 연구에서 이 분류체계의 가정간호 적용 가능성이 어렵다고 피상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간호 분야에서 중요한 수발자 및 지지체계, 가정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보완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